

# 장보고대교 개통 후 달라진 완도 생활권

### 군민 하나되기 가교 역할...읍 주민 왕래 증가 상권 활성화 큰몫...의료·문화 등 삶의 질 향상

완도군은 지난 17일 신유철 군수 주재로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상권 활성화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장보고대교 개통 이전부터 추진했던 23개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통 이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권 버스 노선은 탑승객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읍 동부권 주민의 의료기관 방문객은 개통 전에 비해 49.3%, 노

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따른 목욕권 사용률도 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 개선으로 단일요금제(전 구간 1천300원) 시행과 선박운행 시간에 맞춘 버스운행 횟수(1일 25회)조정 등으로 일 평균 358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정으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고급, 약산주

민들이 식당과 시장을 이용해 완도읍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한몫하고 있으며, 목욕권을 이·미용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달 실시하는 물가 조사에 의하면 농축산물(마트)과 생활필수품(마트)은 같은 회사의 제품도 마트마다 차이가 있으며, 강진군과 비슷한 가격이고 선구품은 마량면보다 완도읍과 약산면이 낮게 조사됐다.

작은 영화관(완도빙그레시네마)은 1일 평균 198명이 관람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문화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읍 주민들은 고급면의 소고기, 약산면의 흑염소를 먹기 위해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읍 상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어린이놀이터 문화콘텐츠 구축 ▲국지도 굴곡도로개선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군수는 "오늘 논의된 세부 과제 이외에도 주민들에 도움이 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관 담당 업무별 쟁점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아울러 소안, 노화, 보길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완도읍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최근 '별난 가족 별난 캠핑'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이 천체망원경 체험을 하고 있다.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운영중인 이 사업은 현재 12차례 진행 56가족 250여 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 '별난 가족 별난 캠핑' 전국평가서 우수등급 선정

### 부산면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가족 동반 천체관측 체험행사

장흥군은 '별난 가족 별난 캠핑' 전문캠핑가 전국 평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별난 가족 별난 캠핑'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8년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천체관측 체험행사로 부산면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지난 4월부터 주말에 1박 2일 동안 운영되고 있다.

천체망원경을 조작하는 방법부터 태양관측 안경 만들기, 별 관측 망원경 만들기, 핸드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어플 활용법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달이나 행성 등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이 알차게 짜여 있어 일반 가족부터 초등학교 단체체험까지 참가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12차례 진행돼 56가족 250명, 3개 초등학교 230명이 참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캠핑은 이달 27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가족체험 일정을 마무리해 참가자들의 아쉬움이 가득하다.

정종순 군수는 "남은 전문캠핑 일정도 부족함 없이 진행해 최종 평가까지 우수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전문캠핑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 관측회를 무료로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고병곤기자

## 강진 행정·친절마인드 함양 보건기관 직원들 대상 특강

강진군은 지난 16일 보건기관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특강은 행복이 꽃피는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대민 행정·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피투게더 서비스'라는 주제로 블룸컴퍼니 최정운 대표를 초빙해 실시했다.

특강의 내용은 대민응대 요령으로 마음 알아차림·행감·서비스테크닉을 활용한 진정한 고객만족 기법과 스트레스 대처법,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한 일상관리법,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방법 등 다양한 사례 소개와 설명으로 진행됐다.

최 대표는 특히 "전화 친절을 얼굴 없는 반가운 만남에 비유하며 응대에 감동을 전할 것"을 강조했다.



함평군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현장. 함평군보건소에서 지난 17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내의료원(약국) 15개소에서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은 백신 소진 시 까지며, 유료 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7천53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함평군 제공

## 100원 해남사랑택시 오지마을 효자 노릇 '톡톡'

### 효동마을 등 관내 40곳 운행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해남사랑택시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화산효동마을 등 19개 마을을 추가해 모두 60개 마을까지 해남사랑택시 운영을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 택시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만4천489회 운행, 4만4천811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이용자가 농어촌 고령층으로 주로 병원과 재래시장 방문 등 90% 이상이 생활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어 지역민의 건강관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700m 이상 9개면 19개 마을을 추가해 262명에게 이용권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택시 확대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용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운행 마을 추가 및 이용 횟수 증가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병용기자

## 오늘 여순사건 70주기 합동추념식 열려

### 안보보훈단체·4대 종단 등 참석

여순사건 발발 70주기인 19일 여수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추념식이 열린다.

순경경찰 유족의 불참은 아쉽지만, 올해 처음으로 안보·보훈단체 회원들이 합동추념식에 참석하고 기독교·원불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이 참여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추념식은 각계각층 시민대표로 구성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권오봉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제4·3사건 등 각 지역 유족들도 참석한다. 추념식은 추모공연과 4대 종교단

체의 추모행사, 추모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합동유령제라는 명칭으로 진행됐던 추모행사는 올해 합동추념식으로 변경됐다. 장소도 미관광장에서 이순신광장으로 옮겼다. 명칭과 장소 변경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구성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논의 끝에 결정했다.

시민추진위는 지난 8월 유족과 공무원, 시의원,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3차례 회의를 하며 추모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학술연구사업 지원 및 추모사업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세웠다"며 "합동추념식이 화해와 상생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민선기자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